

지친 교원들의 치유 학교단위 프로그램 확대

도교육청, 29개 학교 추가 선정... 교사 1200여명 치유·회복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침해로 지친 교원의 치유를 위한 학교단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29개교를 선정 '학교단위 치유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주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1순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많은 학교 △2순위 학부모 민원, 학생 위기 사안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교 △3순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치유와 교직원간 동료성 회복이 필요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상담프로그램, 구성원 간의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구성원 간의 결속과 협동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 상처의 현장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25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미 27개교 861명을 대상으로 학교단위 프

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29개교 1,200여 명의 교사가 학교 차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단위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치유가 필요한 교원과 학교에 화해와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을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교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이 회복돼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베트남 퀴논시에 문화 교류단을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노원엽 학생부처장을 비롯한 학생처 관계자들이 베트남 퀴논시를 방문해 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유치 선순환 도모”

전북대, 하·동계 방학 베트남 퀴논시에 '문화교류단' 파견
현지 교교에 대학 동아리 학생들 파견 문화공연 등 갖기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베트남 퀴논시에 문화 교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최근 노원엽 학생부처장을 비롯한 학생처 관계자들이 베트남 퀴논시를 방문해 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0월 전북대에 따르면 퀴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매년 여름·겨울방학 두차례 문화 교류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고등학교에 전문성을 가진 전북대 동아리 학생들이 파견돼 각종 문화공연과 해외봉사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초 퀴논시 레핀고 고등학교에 전북대 문화 교류단이 파견된다. 이때 K-pop과 태권도, 풍물, 한국의상 체합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

행될 예정이고,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학생들은 퀴논시 현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는 그간 퀴논시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난해 퀴논시 안푸팅 신도시에 한옥정자를 준공하고, 퀴논대학교와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노원엽 학생부처장은 “그동안 한옥 수출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왔던 퀴논시와 한국문화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문화와 전북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차 안전 충전 시스템 창의적 설계 예선 '금상'

전북대 학생팀 제작

전북대학교 학생팀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공학설계 작품으로 지난 9월 열린 '2023년 창의적 종합설계 예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대 등 6개 대학의 추천을 받은 11개 팀이 무대발표와 작품 전시 및 시연발표를 통해 우수한 캡스톤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에 전국 대회에 출품한 금상에는 전북대 제 3의 눈'팀의 전기차 안전 충전 시스템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과열(열폭주 현상) 및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 배터리 온도 임계값도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침수가 판단될 시에 자동차 충전 전력을 즉시 차단함으로써 전기차로 인한 화재 등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됐다.

한편 금상 수상작은 오는 20~22일 한국산업기술평화특별사업 주최로 개최되는 공학페스티벌 2023 창의적종합설계 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전북대 컨소시엄 대표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은상(우수상 추천작)은 제주대학교 '워리어리스트', 동상(특별상 추천작)은 원광대학교 '얼다 갈굴러가자', 전주대학교 '언더그라운드', 원광대학교 '카르본나', 전북대학교 '캐처스' 팀, 장려상은 제주대학교 '공사관', 광주대학교 '병관탐색조', 군산대학교 '이아아아', 광주대학교 '안전전', 전주대학교 '에이비티' 팀이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호남권 초기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 13개 기업 투자사와 매칭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8~9일 양일 간 전주대, 원광대, 조선대와 함께 호남권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연합 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소재한 호남권 13개 초기창업기업이 참여해 각 기업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현지 투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선배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 기회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초기창업기업인 (주)종음(대표 한상열)이 투자사인 (주)아이디어파트너스(대표 김수환)와 5천만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 외에도 참여 기업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6건의 투자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이번 행사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외에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템 검증이 완료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초기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관한 실질적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장은성 기자

공학 분야 세계 최정상 연구성과 '인정'

전북대 이중희 교수, 한국공학상 수상... 전국 지방대 첫 선정 '영예'

전북대학교 이중희 교수(나노융합 공학과·사진)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인 '한국공학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공학상이 시행된 이래 전국 지방대에서는 첫 수상으로, 이중희 교수가 그 영예를 안았다.



이중희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그 결과 이 교수는 지금까지 480여 편의 SCI 논문(이중 상위 10% 이내 논문 380편)을 발표, 연구의 학문적 파급효과도 매우 커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4만1,000회, h-index가 96에 달하고 있다. 복합재료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방학술지인 Composites Part B: Eng의 에디터(Editor)로도 활동 중이다.

한편 이 교수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장과 국가 수송경제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지난 9일 국립과학기술관에서 과학의 날을 맞아 열린 '2023년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에서 이중희 교수는 공학 분야 세계 최정상 수준의 연구성과로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학상 수상자로 선정, 대통령 상장과 상금 7,0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996년 전북대 부임 이래 수소에너지에 관한 꾸준한 연구로 많은 우수 연구성과를 냈다.

특히 그린수소를 저렴하고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다차원 나노촉매 소재 개발로 전극에 적용한 '일괄리 수전해 장치'를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전해 장치 상용화의 길을 열어 청암 기업인 (주)아레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고압 수소저장 용기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등 핵심적인 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상용화에도 성과를 이뤘다.

바쁜 교사들 연수 참여 기회 늘린다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퇴근길-목 연수', 목요일 격주 운영
이달 '학생인권과 교권, 관점의 전환' 주제로 두 차례 실시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이 바쁜 교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목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퇴근길-목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초·중·고 교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연수는 교원의 자기개발과 소통의 대화, '교원의 심력 강화와 그림

으로 마주하는 심리치료'를 주제로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마음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활성화 및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의 교원들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계발 및 협업업과 소통 능력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11월에는 교권(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과 교권, 관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2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연수원은 올해 목요일 격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연수 개설 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병기 원장은 "이번 연수가 교원들의 마음 건강과 심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0월 전주평화의전당 교육실에서 '제11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아침체육활동의 효과성·사례 탐색

전부교육정책연구소, '제11회 콜로키움'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0월 전주평화의전당 교육실에서 '제11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학교 디지털 기기 보유와 학업 저성취 간 관계 탐색, 아침 체육활동의 효과성 및 사례 탐색, '코로나19가 전후 미국 학생들의 수학·읽기 성적 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학교 디지털 기기 보유와 학업 저성취 간 관계 탐색'에서는 학교의 디지털 기기 보유와 학업 저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학교의 디지털 기기 보유량 증가에 따라 교과별 학업 성취

최하 등급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제시했다.

또 아침체육활동의 효과성 및 사례 탐색'에서는 국내·외 아침체육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체력 향상, 뇌 기능 활성화, 집중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에서 효과성이 확인됐음을 소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아침운동 신명나게!(아신나!)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콜로키움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보고서에 학교 현장에 더욱 빠르고 친밀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마지막 콜로키움은 1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전주대, 도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마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운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도민과 함께하는 제2회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전북도민 30여 명과 함께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현장답사와 강연 청취를 통해 유교문화의 친숙도를 제고하고 유교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며, 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첫날 오전은 조선 전기의 문인 이자 학자인 정여창 선생의 고택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 서원을 들렀다. 오후에는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경남의 성리학자 남명 조식을 배향한 덕천서원, 강학공간인 산천재 등을 방문했다.

이어 둘째 날은 임진왜란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진주성과 국립전주박물관을 관람한 뒤 최치원의 사비릉으로 유명한 지리산 상계사를 둘러봤다. 또한 한국산학문화연구원 김경수 책임연구원의 강의로 남명 조식의 일생과 사상, 남명학의 형성과 전개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남근 씨는 "논개의 유적이 있는 진주성이 남다른 느낌이 들었다. 또한 정여창과 조식 등 경남지역 사림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들이 남긴 유산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운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프로그램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유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